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변모

강 혁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주제어 : 근대적 공간체계, 탈근대성, 차이와 이질성, 타자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공간’(space)은 건축의 핵심적 본질을 규정하는 용어이자 건축 고유의 속성을 지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간이란 용어를 동원하지 않고 건축을 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세기 이전의 서구의 건축 문헌에는 공간이란 말이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 공간적 견지에서 건축을 말하고 생산하는 일은 건축의 긴 역사에서 극히 최근의 사태인 것이다. 그전까지 공간은 형이상학적 명제에 속했을 뿐, 건축과는 무관하거나 소원한 개념이었다. 건축이 공간을 조성하는 활동이라는 사고가 대두하면서¹⁾ 건축 고유의 본질적 영역으로 공간이 부각되었고, 건축

은 여타의 조형 예술과는 구별되는 자율적인 전문 분과(discipline)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²⁾

오늘날 공간 개념 없는 건축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한 인식 자체, 곧 ‘건축에서의 공간 중심적 사고’가 근대의 소산임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건축의 역사에서 ‘공간의 발견’은 근대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시기에 공간은 비로소 건축의 영토 내부로 포섭되었다.³⁾ 건축을 형태나 물리적 고형물로가 아니라 빈 공간으로 보고, 또 그것을 미학적 체험의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근대 이전에는 생소한 것이었다.⁴⁾ 건축을 판단하는 최종의 심급

* 본 연구는 2003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

1) 공간(Raum)은 “인간의 정주와 거주를 위해 자유와 개방성을 가져다주는 치움(clearing-away, Raumen)을 의미한다.

Heidegger, "Art and Space", trans. by C. H. Seibert, [Form, Being: Absence, Architecture and Philosophy, Pratt J. of Architecture], V. 2, Rizzoli, N.Y., 1988, p.10

2) P. Collins, [Changing Ideals in Modern Architecture], McGill-Queens Univ. Press, Montreal, 1965, p. 286.

J. Kipnis, "Four Predicaments", [Anywhere], ([공간의 논리], 현대건축사, 1998), p. 163

3)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힐데브란트, 슈마르소, 리글, 빌플린, 프랭클, 캠프스너, 기디온 등 독일계 미술사가들과 건축사가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4) 근대에서 공간의 부상과 다양한 이론의 역사를 잘 설명한 저술로 C.J.M. Van de Ven의 [Space in architecture(Van Gorcum, Assen, 1980):(정진원·고

(審級)으로 공간이 내세워지게 된 사태야말로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인 것이다.⁵⁾



<그림1> 수정궁, 조셉 팩스톤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공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건축 본연의 과제로 공간의 창조 행위를 상정했다.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이 시대를 표상하고 고유한 미학과 감수성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주장은 당대의 선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건축은 공간으로 번역된 시대 의지이다”라는 미스의 유명한 언명은 그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⁶⁾

실제로 꼬르뷔지에나 미스를 위시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은 성기 근대(high Modern)라 불리는 생산적인 시기에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창출해 내었고, 그것은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전 지구적 승리와 더불어 지구촌의 도시와 건축을 규정하는 주된 공간 형식이 되었다. 전후 근대건축 본래의 다양한 지향성을 대폭 상실하고, 현실 생활세계에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하였지만, 근대건축의 공간은 분명 동시대의 기술과 재료와 미적 취향의 산물이자, 경제성, 합리성, 기능성 등과 같은

가치와 결부된 특유의 현상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대 이후 건축 담론과 실천에서 공간은 점차 중심적 지위를 상실해 감이 관찰된다. ‘공간’을 동원하여 건축을 논변하고 생산하는 일이 감소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현대 건축에서 공간은 부차적인 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사태의 이유를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의 이론을 건축 생성의 담론으로 계속 발전시키는데에는 일정한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축공간론은 20세기 후반에 이론으로서 신통한 발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둘째로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 성기 근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적 창안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⁷⁾ 단조로운 국제양식의 공간을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공간론을 확장하거나 극복하는 이론으로 장소론이나 환경론이 등장하면서⁸⁾ 건축의 다양한 차원 중 공간 자체만을 특권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했다는 것이다.⁹⁾ 넷째로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더불어 양식 혹은 형태가 복권되고 공간의 담론적 비중이 급격히 축소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공간의 조성이 건축의 본질적 과제라는 명제가 상식화되면서 건축의 다른 측면으로 관심이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표층, 구축, 물성 같은 주제가 부상했다. 여섯째

성룡 역, [건축공간론], 기문당)이 있다.

5) 대표적인 것이 B.Zevi의 [Architecture as Space] (Horizon Press, 1957) 같은 책이다.

6) Ludwig Mies, "Working Thesis",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ed. by U. Conrad, The MIT Press, Cambridge, 1970, p. 74

7) Van de Ven, 앞의 책, p. 302

8)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베르그 슐츠의 [Existence, Space, Architecture](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역, 태림문화사, 1985)과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Academy Editions, London, 1979)를 들 수 있을 것이다.

9) 로저 스크러튼은 공간이 건축의 본질이라는 사고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R. Scruton, [The Aesthetics of Architecture],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1979([건축미학], 김경수역, pp. 1985, 55-65)

로 해체주의 건축 등에서 보듯 건축 바깥의 철학, 언어학 등에서 이론적 원천을 끌어오는 일이 크게 유행하면서, 건축 내재적 주제인 공간은 덜 거론되었다. 현대 건축의 담론에서 공간은 주요 의제에서 비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근대주의 이후’ 동시대 건축의 상황¹⁰⁾이 공간적 견지에서 검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변화가 없었고 별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할까? 조금만 눈여겨보아도 그것이 적절치 않은 판단임은 곧 분명해 질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이래로 현대건축의 양상을 일별해보면 주목할 만한 공간상의 성취가 발견된다. 공간적 전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20세기 중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최근 2, 30년간의 건축 공간의 변모는 가히 혁신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급진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적 양상을 공간이라는 견지에서 본격적으로 논하는 연구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본 연구는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건축 공간상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연구가 거의 부재함에 주목하고, 그것이 근대 이후를 모색하는 여러 움직임과 맞물려 일어나는 변화라는 전제 하에, 상황적 설명을 기술하고 거칠게나마 전경을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근대주의 이후’(After Modernism)는 시간적으로는 물론 동시대를 뜻하지만¹¹⁾ 개념적으로는 모더니즘 건축에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타자화 하려는 모든 종류의 노력,

그에 수반하는 건축적 모색이나 성향들을 지칭한다. 그것이 어떠한 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된다.

그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우선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재구성/단절하고자 하는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적 성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동시대 공간의 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들을 열거하고 진단한다. 더불어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의 내용과 질적 특성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의 비판적 해석을 시도한다.

2.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을 말한다는 것은 근대건축의 공간과의 차이를 전제한다. 그 차이의 성분이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의 정체성을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을 논하려면 먼저 근대 건축의 공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대 건축(현대 건축)은 상당 부분 근대주의(Modernism)를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그것과의 ‘차별성(difference)’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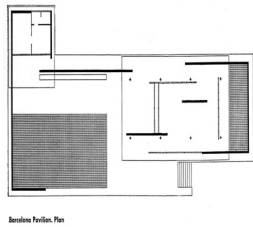
그렇다면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의 정체 규명을 위한 차이의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근대 건축 공간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선 ‘건축 공간’ 자체가 지극히 근대적인 사고의 산물임이며, 공간을 사고하고 생산하는 방식 역시 근대적 인식틀 속에서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¹²⁾

콜린 로우는 근대 건축의 특성으로 “동시성, 상호관입, 중첩, 시-공간, 투명성”을 지적한 바

10) D. Ghirardo, [Architecture After Modernism], 1996 ([모더니즘 이후의 근대건축], 최왕돈 역, 시공사, 2002)

11) 보통 근대 이후는 벤튜리의 [건축에서의 복잡성과 모순], 로시의 [도시의 건축]이 출간된 1965년 이후를 말하나 여기서는 실천적 의미로 1980년대 이후를 지칭한다.

12) 上松佑二는 이런 관점에서 건축 공간의 등장과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上宋佑二, [건축공간의 미학], 이두열역, 현대건축사, 2000



<그림 2>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있다.¹³⁾ 그것은 그대로 근대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흔히 근대 건축은 내부로 완결되고 닫힌 고전 건축의 공간을 해체하여 자유롭고 유동하는 공간을 낳았다고 말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데 스틸, 미래파, 러시아 구성주의 같은 근대 운동은 전래의 견고하고 폐쇄적인 벽체를 분해하고 내외 공간의 구분을 지워버림으로써 공간의 흐름과 상호 침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적 성격이 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대 건축의 공간이 건축 영역 내부의 자율적 산물이기 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생산물이며,¹⁴⁾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근대건축의 공간은 ‘근대적 시공간 체제’(Modern Space Time System)의 일환으로 존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의 공간과 근대의 시간은 상호 결부되어 근대 세계(Modern world)를 구성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근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근대적 시공간 체제인데,¹⁵⁾ 우리를 근대인으로

살아가도록 제한하고 틀 지우는 선행적(a priori) 토대이다.¹⁶⁾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 역시 그 안에 있으면서 생산되고 소통되며 경험되는 존재인 것이다.

결국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은 근대 공간이라는 더 포괄적인 범주의 일부이자 특정한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미학적이고 개념적인 것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근대 세계의 삶의 공간에 속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대의 산물이자 동시에 근대성을 구현한 핵심 요소로서 근대 공간은 보통 기계론, 인과론, 선형적 세계관에 지배되고 있다고 말해진다.¹⁷⁾ 모든 것을 보편성 안에 묶고자 하는 동일성의 원리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니면서 건축 고유의 표현적 가능성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상으로서 근대주의 건축은 내부에는 다양하고 상호 이질적인 흐름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공간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근대성의 건축적 대응이자 예술적 표출로서 근대건축의 공간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리와 특성들을 담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성애 지배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수학적으로 형식화된, 즉 수치로 표기되고 계산되는 공간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와 뉴턴 물리학에 근거한 것으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3차원의 절대 공간으로 나타나며,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공간이다. 공간이 불변이자

13) C. Rowe,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 The MIT Press, Cambridge, p.160

14)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의하면 공간도 유물적 조건에 좌우되며 특정 시대와 사회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Nicholson-Smith, Black Well, 1974,1991

15)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p.29

16) 칸트는 현실 세계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더불어 공간이라는 선행적 직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철학이 뉴턴의 물리학과 깊은 관계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 E. S. Casey, "The Supremacy of Space",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 California, U. of California Press, 1998, p. 192

17) 이마무라 히토시는 이러한 근대성의 기원과 구조를 잘 다루고 있다. / 今村仁司,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역, 민음사, 1996

공통의 실재 같은 것이 됨으로서 근대 (건축)의 공간은 분할하고 더할 수 있는, 즉 조작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¹⁸⁾

둘째, 기하학적인 환원의 정신에 의거해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하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공간이 추상화되면 인간 고유의 경험과 주관의 자의성은 배제된다. 근대 이전에 공간이 지녀왔던 지역성과 역사성, 상징성과 신성이 제거되고, 공간 특유의 개별성, 장소성 역시 부인된다. 대신에 객관적인 수학과 기하학이 공간을 규정, 산출하는 작인이 된다.¹⁹⁾

셋째, 균질화된 중성적 공간이다. 추상과 환원은 공간 고유의 질적 특성은 제거함과 동시에 공간의 동질성은 강화한다.²⁰⁾ 그 결과로 공간의 성격은 일의적(一議的)이며 중립적인 것이 되었고, 표준화와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다. 균질한 중성 공간은 보편적이고 익명적이어서 인간의 신체와 무관하며, 좌표나 입체 기하학으로 표상된다.

넷째, 시간 차원의 공간에로의 도입이다. 운동과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닫히고 고정된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시간성이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된다.²¹⁾ 공간은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등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가변적인 것이 되었다. 시공간 연속체로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동에 따른 시점의 변화와 공간의 파노라마가 생겨났다.

다섯째, 개방적이며 투명한 공간이다. 밀폐된 입방체가 분해되고 면들이 해방되면서 공간의 확장과 흐름이 자유로워졌다.²²⁾ 유리 같은 신재료 역시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외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종래의 한정되고 닫힌 공간 대신에, 내부와 외부 사이로 열리고 흐르며, 상호 침투(관입)하는 동적인 공간이 생성되었다.²³⁾



<그림3> 사보아주택, 꼬르뷔제

여섯째, 생산과 효율,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서 공간이다. 근대의 (건축)공간은 그 표준화와 배치를 통해 인간 행위를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며, 주도하는 장치로 고안되고 설계되었다. 이는 근대 산업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생산, 규제, 지배를 위한 공간으로 생활 세계의 일상을 망라하는 공간 구조 내지 유형을 낳았다.²⁴⁾ 기능주의와 공간의 진정한 연계는 여기에 있으며, 국제양식이 획일화된 균질 공간으로 귀결된 이유이다.

이상의 근대건축 공간의 패러다임이 실제에서 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18) 이진경, 앞의 책, 4장
 19) 이는 이미 전기 근대의 듀랑의 건축에서 잘 나타난다. 미스의 보편 공간(universal space) 역시 이의 실천적 구현일 것이다.
 20) 이는 서구 역사에서 정신의 공간, 영혼의 공간을 상실하고 단 하나의 동질적인, 유품적인 물리적 공간만이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 M. Wertheim, [공간의 역사], 박인찬역, 생각의 나무, 2002, pp. 199-202
 21) 기디온의 주장에 의해 일반화된 시공간의 개념은 실상 불명료하고 근대건축의 공간의 특이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감이 있다. / P. Collins, 앞의 책, pp. 313-323

22) 이는 르네상스시대의 투시도적인 공간의 해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23) R. Banham, "Space and Power" in [Age of Masters], 강혁 역, 태림문화사, 1988, p. 56
 24) 이러한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은 미셸 푸코이다. 그는 일상 속에 깊이 뿌리박은 미시 권력의 장치가 공간을 통해 구조화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M.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남양출판사, 1975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근대 공간의 새로운 속성으로 제시되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 새로움이란 공간으로 나타나는 근대성에 다름 아니며, 오랜 동안 서구 건축을 지배해온 인본주의적이고 고전적인 공간과의 결별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건축의 공간은 전 시대의 건축 공간이 견지했던 질서와 조화, 통합과 완결, 중심과 체계성 같은 가치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기도 했다. 한편 변화와 자유, 파괴와 불균형 등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선 질적 특성을 보유한 것도 사실이다.²⁵⁾ 이 점에서 우리는 근대건축 공간에서 모더니티의 양면적 성격, 즉 고전적인 것과의 연속과 단절을 읽을 수 있다.²⁶⁾

건축사적으로 볼 때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근대 건축의 공간이 보유한 질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지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의 공간은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일성’, ‘균질성’에 지배되던 근대 공간과는 달리 고유한 ‘차이’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²⁷⁾

25) B.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 of Washington, Seattle, 1978 / 여기서 제비는 근대 건축 언어의 코드를 고전 언어와 전적으로 분리된 반고전 언어로서의 코드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전 언어는 적지 않게 근대건축에 스며들었다.

26) 미스나 포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등의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고전적 성향을 지적하기는 쉽다. 폴린 로우는 일찍이 근대 건축의 이런 양면적 성격을 발견하고 강조한 바 있다. C. Rowe, 앞의 책

27) 동일성과 차이는 근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대체로 동일성이 근대성을 대변한다면 차이는 근대 이후의 탈근대성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플라톤 이래 서구적 사유 자체가 동일성(동일자)에 차이를 중속시켜온 역사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대표적 저서의 하나가 [동일성과 차이]이며 레비나스나 들뢰즈 같은 탈근대의 사상가들은 차이와 타자의 철학을 펴고 있다.

이는 물론 다원화와 개별성이 존중되는 근대 이후의 시대적 양상에서 충분히 수긍 가능한 현상이며 최근의 사회 문화적, 기술적 변용의 반영이자 결과로 비친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상의 변모는 그것을 추동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출현 배경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의 출현은 시대적 상황, 즉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후기 산업 사회, 대량 소비사회,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같은 국면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신중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문화, 키치 문화가 주도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현실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는다. 현대 대도시에 대한 경험과 이해, 현실의 삶에서의 공간의 가상화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동시에 현대 사상과 담론이 그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신과학(new science)의 흐름 역시 무관하진 않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탈근대적 상황이 동시대 건축의 공간을 낳는 동인이자 환경으로 지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공간상의 혁신은 주로 동시대의 건축을 주도하는 네오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⁸⁾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으로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인 정보 및 매체 혁명이 있다. 전 지구를 네트워크화하고 일상 혁명을 이끈 인터넷, 디지털 테크놀로지,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이 건축공간의 전위

28) J. Kipnis, "Forms of Irrationality" in [Strategies in Architectural Thinking], ed by J. Kipnis & J. Whiteman, CIAU, 1991

적 실험을 선취하고 있다.²⁹⁾

이상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추이를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3-1. 탈근대와 해체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을 근대 공간에 대한 자의식적 변별화로 보자면 그 기원은 근대주의의 근거를 심문하고 그 모순을 비판한 건축의 탈근대적 기획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소위 건축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과거 회귀적인 역사주의, 절충주의, 장식주의로 기울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근대주의 건축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지탱하던 여러 전제와 신조에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근대에서 이탈하는 첫 물꼬를 텃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건축에서 진정한 탈근대적 기획은 해체주의 건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후기 구조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더욱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했다. 근대의 동일성을 지양하고 그 저변에 드러나 있는 근대적 주체와 거대 서사, 이성 중심주의와 인본주의적 재현(representation)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비판을 건축에 도입한 것이다.

건축에서 해체는 구조 및 양식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건축의 내부에 굳건히 자리 잡은 전통에 대한 교란과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전도와 분해는 건축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³⁰⁾ 해체주의 건축

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공간은 그 유사성만큼이나 개별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고, 각각의 관심사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은 ‘침해된 완전함(violated perfection)’이란 핵심어가 잘 설명해주는 것처럼 교란되고 흩어져버린, 비정합적인 공간들이다.³¹⁾ 그것은 근대 세계의 표상으로서 합리적 세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 내지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동시대의 건축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탈근대 철학자 들뢰즈이다. 그것은 그의 사유가 서구적 ‘존재의 철학’이 간과해왔던 우연한 것, 다양한 것, 변화하는 것을 평가할 계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³²⁾ 플라톤 이래 서구 건축의 전통은 영원한 것, 이상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구와 원망으로 점철되어 왔다. 건축이야말로 그에 대한 현세적 은유이자 가시적 증거였다. 그러나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은 사건/변화와 시간성을 적극 수용해왔고, 탈근대의 담론은 그것을 더욱 가속화했다.

들뢰즈의 철학은 이런 흐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건축에서 주름과 표층 효과라는 화두를 제공한 것도 들뢰즈이며,³³⁾ 끈질긴 표상성의 집착에서 벗어나 비표상의 모험으로 이끈 것도 그이다. 여하튼 여러 건축가들이 그의 사유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실물 공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낯선 건축공간의 출현 배경에는 이렇듯 탈근대의 사상이 도사리고 있다.

29) 최근의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이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을 실제처럼 선보이고 있으며, 그 정교성은 가상과 현실, 조작과 실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30) 해체주의 건축은 1988년 뉴욕 근대미술관(MOMA)에서 7명의 건축가를 초빙하여 ‘해체주의’ 건축전을 개최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그것은 하나로 결집된 운동이나 이념도 아니었고, 미미한 경향성이었지만 현대건축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1) A. Betsky. [Violated Perfection], Rizzoli, NY,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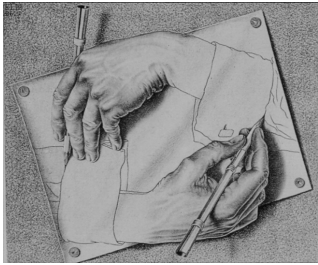
32) R. Bougue, [들뢰즈와 가타리], 이정우 역, 새길, 1995

33) G. Deleuze,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이찬웅 역, 민음사, 2004

3-2. 복잡성의 과학과 혼돈이론

근대주의 건축의 성립 이전에는 근대 과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근대적인 공간관의 근거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위치와 거리, 체적이 3차원적인 좌표축선상에 수치로 나타나며, 보편적인 기하학으로 환원되는 절대 공간을 의미한다.

그것이 근대 건축의 공간 생성에 핵심적인 원리이자 실천의 기제로 작용해왔음은 분명하다.³⁴⁾ 데카르트적인 격자 공간이나 3차원 입방체가 지배적 다이어그램으로서 건축 생성의 토대로 기능해왔음은 코르뷔지에의 도미노 시스템이나 데 스틸의 공간, 혹은 미스의 보편 공간(universal space)에서 명백하다.



<그림 4> 세계의 비선형구조

이에 비하면 포스트모던 과학, 혹은 신과학(New Science)으로 불리는 현대 과학은 세계와 공간의 이해라는 점에서 근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열역학의 혼돈이론, 혹은 복잡성의 과학은 이 세계가 선형적 논리와 질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보다 우연과 불확실성과 통계에 의해 좌우되는 복잡한 것임을 주장한다.³⁵⁾ 질서 대신 혼돈이, 결정성 대신 비결정성이 더 근본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는 혼

돈 이론은 질서와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건축의 오래된 전통에 강력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³⁶⁾

20세기 후반 과학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생명 과학과 유전자 연구에서 일어났다. 생명 현상과 유기체에 대한 기계론적 이해에서 벗어나 그것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피드백하는, 자기 조직화하는 현상임을 보여준 것이다. 생태학, 뇌과학과 인공 지능의 연구도 생체와 환경, 지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고 있다. 따라서 동시대 건축의 담론에서 프랙탈, 카타스트로피, 엔트로피와 같은 과학 용어가 동원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³⁷⁾ 현대 과학의 성과나 특수한 국면을 건축 공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주의 건축의 유클리드적 3차원 공간은 우주와 자연과 생명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공간,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생활 세계의 현상학적 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근대 이후의 건축 공간에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도일 수 있는 것이다.

3-3. 정보사회, 전산, 영상문화

근대 이후 현대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의 오랜 정체성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건축의 미래에 거대한 가능성과 불안을 제공하는가 하면, 당장 오늘의 건축 공간을 급속히 바꾸어

34) 물론 근대 건축의 풍부한 유산을 관찰해 볼 때 표현주의나 미래주의, 러시아 구성주의에서처럼 합리주의적인 공간을 초월하려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35) Ilya Prigogine, [혼돈으로부터 질서], 신국조 역, 고려원

36) 그 밖에도 르네 톱의 카타스트로피 이론, 미셸 세르 등의 과학 철학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37) [AD 67: New Science-New Architecture], No9,10, Academy Edition, London, 1997

놓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 가장 큰 변화는 컴퓨터의 도입이다. 그것은 디자인 생산방식에서, 표현에서, 그리고 건립에서 과거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건축은 건축 공간 형성의 오래된 원리였던 기하학적 구성, 격자와 모듈 중심의 입체, 투시도법적 공간을 폐기하고 새로운 건축 공간의 생성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공간 재현의 수단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공간을 개척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3D 디자인을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과 조작성 이미 디자인의 일반적 과정이 되었다. 디자인은 건축가의 주체적인 창조행위라는 근대적 관행에서 벗어나 테크놀로지를 수단으로 삼아 미지의 미래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³⁸⁾

오늘날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공간이 디지털 디자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³⁹⁾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디자인이 새로운 신중공간의 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의 논리와 상상력의 외부에 존재하는 예측 불가능성과 우연성이 건축 공간의 생성에 잠입한다.⁴⁰⁾

이렇듯 현대의 기술 문명의 진보는 과거에는 사유하거나 상상하기 어렵던 공간들의 생산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3-4. 후기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과 도시의 변용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소비문화가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대중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동시대 건축이 후기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 존립하면서 그 문화적 전략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포섭되어서 복무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의 잉여와 확대를 위해 자본은 건축에게 대담한 실험과 기술의 적용을 허용한다. 자본 간의 경쟁은 건축의 신기성을 추구하게 하는 한 이유가 되며, 도발적이고 전위적인 공간의 탄생을 조장한다. 극적이고 환상적인 초대형 공간들과 하이테크적 첨단 공간의 탄생에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있다.⁴¹⁾

한편 후기 자본주의는 정주 대신 이동으로 특정 지워지는 유목민적 삶의 양식을 초래하기도 했다.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의 공간이 현대 도시의 일상 환경이 된다. 대개가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그 공간들엔 장소감과 정위감이 극도로 희박하다.

그래서 오늘의 도시 공간은 길 잃음과 헷갈림으로 특징지어지며 진다. 그곳은 속도와 변화, 그리고 혼돈에 지배된다. 그 결과는 장소의 상실과 공간의 미로화이다. 현대 메트로폴리스에서 발견되는 공간과 장소의 비연속성, 부조화와 혼란은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

38) 피터 아이젠만의 최근 작업이 그러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이어그램의 끝없이 변화하는 형상과 공간으로부터 생성의 동기를 끌어내고 있다. / P. Eisenman, [Diagram, Diaries], Thames & Hudson, London, 1999

39) 그 대표적인 예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프랭크 게리가 근래에 세운 건물들의 현대와 공간을 들 수 있는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3차원 곡선들의 도면화와 시공은 전적으로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다.

40) 최근의 이런 시도를 대표하는 그레그 린은 장소를 움직임의 공간이 되도록 하려 한다. 진산을 실현 수단으로 동원하여 시간의 흐름을 액상으로 동결하여 공간화하려는 것이다. 즉 운동과 사물 사이에 역동적인 힘을 공간에 담아 형상화하는 것이다.

41) 하비는 후기 자본주의적 유연 축적과 도시 환경을 논하면서 시공간 압축이라는 개념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으로 도입한다. /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역, 한울, 1994]

에 다름 아니다.⁴²⁾ 이러한 탈근대적인 도시성이 다시 건축의 내부 공간 속으로 침투하는 것은 전혀 낮은 일이 아니다.⁴³⁾

이렇듯 비현실적인 도시 체험에서 인공적인 시뮬라크르로서의 가상 도시와 장소로의 이행은 시간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디즈니랜드나 라스베이거스는 완전히 시뮬레이트된 공간으로 가상이 현실이며, 동시에 현실이 가상인 공간이다.⁴⁴⁾ 그곳에서는 과거와 미래, 신화와 환상이 한자리에서 모자이크되고 콜라주된다. 그 공간은 극사실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초현실의 세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항상 실재(reality)와 현존(presence)의 지지자였던 건축이 근대 이후에는 가상과 허구의 생산자로 변하고 있다.⁴⁵⁾ 현실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상성과 환상성이 개입된 공간으로서의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것이 근대 이후 삶의 공간의 부인할 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4. 근대주의 이후 건축공간의 양상

일찍이 기디온은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의 본질로 시-공간(space-time)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시대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그러한 거대 담론적 설명이 시도된 데서 우리는 동일성이 지배하는 근대 비평의 단면을 엿보게 된다.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을 규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거대 담론적인 단일 명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동시대의 건축 공간은 한마디로 규정하거나 유형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실로 현대 건축이 진화하며 전개해나가는 공간상은 변화무쌍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간단치 않다.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다양한 흐름들이 서로 엉키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고, 종결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욱 근대 이후의 공간의 변모를 역사적, 비평적으로 포착할 그물로서 적실한 관점과 논리는 필요할 터이다. 그것이 외양적 현상을 명쾌하게 분류하는 계보도를 작성하는 일이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근대주의 이후’라는 명제대로 근대와의 연관 속에서 동시대 공간 특유의 지향성(intentionality)과 성향을 추적하여 그 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시대 건축 공간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이해하는 게 생산적일 것 같다. 그 첫째는 근대주의에 비판적 입장에 서면서도 근대 공간이 본디 지녔던 잠재력을 확장하고 극대화하려는 성향이고, 둘째는 근대주의의 한계를 통감하고 그 외부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경향이다.

이런 구도를 역사적 퍼스펙티브에서 조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1920, 30년대 근대 건축에서 펼쳐졌던 다채로운 공간적 실험들이 2차 대전 후에 획일화된 국제양식의 공간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았다면, 근대주의 비판에서

42) M. Foucault, "Of Other Spaces ; Utopias and Heterotopias", in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ed. by J. Ockman, NY, Rizzoli, 1993, pp. 420-426

43) 프레데릭 제머슨은 존 포트만 설계의 LA 보나벤투르 호텔에서의 공간경험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했으며, 포스트 모던하다고 말한다. F. Jameson, "Post 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in [The New Left Review 146]. Jul, Aug, 1984, pp.80~84

44) N. Leach, 「The Anaesthetics of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9. pp60~64. 리치는 현대건축의 스펙터클화, 미학화와 소비문화의 결부를 라스베이거스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45) 강혁, [포스터모던 시대의 허구적 유토피아], 이상건축, 27, 1994, 이상건축사, pp136~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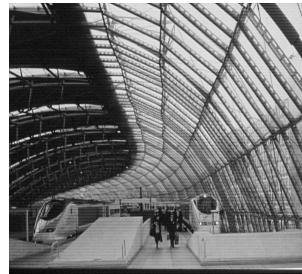
출발하는 근대 이후는 이전과 다른 공간상의 가능성들을 여러 방식으로 모색하면서 다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주의 공간의 지배적인 주조가 동일성이었다면, 근대 이후의 공간을 특징짓는 핵심어는 차이와 이질성이 될 것이며, 그것은 곧 '타자성'(otherness)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근대주의와 변별되는 새로움의 추구인데, 근대 공간이 억압해온 '다른'(other) 공간의 생성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모더니티의 제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의 구체적인 필침이 바로 근대 이후 공간의 양상이 될 것이다.

4-1. 근대주의 공간 가능성의 재고 및 극대화

현대건축의 큰 흐름 중 하나가 근대적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풍부한 유산을 재평가하고 되살리려는 노력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완의 기획으로서 근대주의 건축이 동시대 건축에서 부활되는 양상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근대 고유의 급진성과 이상주의는 거의 탈색된 채, 겉보기에 신기하고 도발적이지만 내적으로는 순응주의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공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간의 미학화와 스펙터클화, 기술숭배와 형식주의, 그리고 감각적 조작이 후기 근대의 대표적인 양상이 된다. 혹자는 그것을 신근대(Neo-Modern)라고 부르기도 하지만⁴⁶⁾ 과거 국제양식의 순진한 실증주의 및 단순성과는 사뭇 다른, 한층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 하이테크 건축의 공간을 들 수 있다. 거기에는 근대의 투명성과 무한성을 한층 발전시킨 극적인 공간이 펼쳐진다. 기술의 표현적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장대한 내부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공간의 형식은 매우 복잡하여 내부에서 전체를 지각하기가 쉽지 않다.⁴⁷⁾ 이러한 성격의 공간은 주로 초대형 상업시설, 공항, 컨벤션 센터, 대형 스포츠 시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대형 건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그림 5> 워털루스테이션, 그림쇼

동시대의 거대 공간은 어떤 면으로는 수정궁 같은 초기 근대의 것들을 계승한다. 그것은 기술 낙관주의에 기대어 건축의 오랜 역사를 지배해온 중력/물질성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한다. 투명성과 무한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근대의 공간이 단일하고 균질하다면, 최근의 거대 공간은 사뭇 다르다. 세련되면서 복잡한 기하학적 형식을 취한다는 것, 과거보다 훨씬 가벼운 구조와 얇은 피막으로 경쾌하고 화려한 공간이 연출되고 있다는

46) 쟁크스는 후기 근대(Late Modern)와 신근대(Neo-Modern)를 양식에 따라 구분하고. 전자를 모더니즘을 형식주의를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후자를 해체주의자 등에서 보듯이 전위적이면서 근대적 양식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려는 흐름으로 구분한다. C. Jencks. [Neo-Modern Architecture], ([네오-모던 건축].조희철 외 역. 공간예술사. 1992)

47) 예를 들면 우리는 캐나다의 이튼 센터, 포트만의 보나벤투어 호텔(LA), 노먼 포스터의 상하이 은행, 페이 사무소의 뉴욕 컨벤션 센터(Jacob Javits Center), 헬무트 얀의 시카고 오페어 공방, 리차드 로저스의 채널 4 스튜디오, 라파엘 비볼리의 도쿄 포럼 같은 건물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하게 된다.

것, 실내 공간 자체가 외부화되면서 인간은 왜소해지고 내시경적으로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공간 표면이 과도하게 분절하거나 장식화되면서 부피나 체적의 감각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공간의 수사학'이라고 부를만한 의도적 연출이 개입된다. 더욱 교묘하게 공간을 대상화하고 조작하는 것이다. 화려함을 초월하여 현란하기까지 하며, 극도의 관능미와 탐미성이 스며있기도 하다. 공간 내부로 구조 및 설비가 일종의 장식으로 노출 되는가 하면, 표면을 감싸는 반사체는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드라마틱한 대공간은 점차 미로가 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표출한다.⁴⁸⁾ 결과적으로 공간의 환상적인 분위기는 '여기, 이곳에'의 감각을 약화시킨다.⁴⁹⁾

또 하나의 중요한 조류로 해체주의자들의 공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근대주의의 공간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진복하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다. 그들에게서 부분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편린을 엿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모더니즘 건축이 꿈꾸었으나 실현해보지 못한 근대 공간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몰아가고 있다.⁵⁰⁾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근대와의 단절되는 질적 성분들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해체주의자들의 공간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추구한 추상성, 투명성, 운동성 같은 특징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

의 공간들은 그 내부에 억지로 어려운 조화 및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이질적이고 모순된 요소들이 중첩되고 교차하는가 하면, 상호충돌하면서 교란되고 전도된(displaced) 공간을 장려한 풍경으로 드러낸다.

여기서 관습적인 건축의 요소들인 기둥이나 벽체, 천장과 바닥 들은 탈맥락하여 파편화된 채 공간 속에서 어지럽게 부유하고 있다. 그것들은 어긋나고 기울어 있는가 하면, 파열하고 흩어지면서 긴장과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 공간의 전개가 다의적이고 역동적이어서 전체 공간의 주조음을 포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유희적이고 관능적인가 하면, 극단적이고 광적이어서 자기 파괴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서 근대 이후의 건축이 지향하는 공간의 한 성향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조화롭고 질서 잡힌 인본주의자적인 공간에서 이탈하여 현대 세계의 복잡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적극 수용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인 것이다.⁵¹⁾

4-2. 건축공간의 새로운 이질성

해체주의자의 공간이 이미 예고했듯이 최근에 출현하고 있는 공간들은 여러 측면에서 근대주의 건축의 공간과 결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새로운 이질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사고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을 건축 공간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는 담론과 매체를 통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급속히 주류화하고 있기도 하다.⁵²⁾

48) 프레데릭 제임슨이 포트만의 보나벤투어 호텔(LA)를 진정한 탈근대적 건물로 지적하는 이유가 이러한 길잃음의 감각, 공간의 수사학, 거리감의 상실 때문이다. F. Jameson, 앞의 책

49) 즉 장소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특정 공간의 개성을 극도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그곳의 지역/장소적 고유성을 상실하고 어느 곳이나 똑같음, 혹은 차이 없음(anywhere)을 유발하는 역설을 발생케 하는 것이다.

50) C. Cooke, 'Russian Precursors' in [Deconstruction, Omnibus Volume], NY, Rizzoli, 1989, pp. 11~19

51) 비틀러는 이를 오랜 (서구 인본주의적 전통) 건축에서 신인동형적 구현이 무너지고 섬뜩한 낯설음(uncanny)이 대두한 것으로 본다. / A.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The MIT Press, Cambridge, 1992, p.xiv.

52)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그랬듯이 최근의 시도들 역시 아카데미(대학과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부

근대주의 공간과의 거리두기/차별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모색해가는 동시대 건축 공간의 특성들을 요약해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첫째로 근대주의 건축에서까지 일관되게 견지해오던 공간의 위계와 질서, 통합의 체계를 거부하고 그것을 교란하거나 파괴하고자 한다. 공간 생성의 새로운 단초로서 종래의 선형적 논리로부터 탈피 역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성을 지배하던 인과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의 특권화는 지양되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 자의적인 것이 더 존중받는 가치가 되었다.⁵³⁾

건축 디자인이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는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전환될 때, 공간은 복잡해지고 애매함은 증가하게 된다. 공간이 상관적이며 비체계적이 되어 가면서 내부의 역동적인 부조화는 결합이보다 미덕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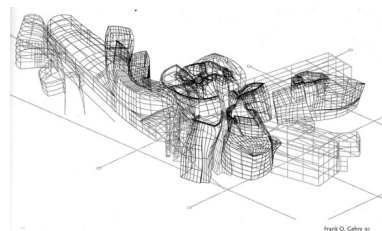
그러므로 근대 이후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복잡성과 혼돈으로 이행하게 된다. 근대주의 이후의 공간은 근대 공간에 비해 공간의 자유도 내지 혼란도(randomness)가 훨씬 크다. 근대 공간이 정태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면, 그래서 공간의 상대적 안정성이 크다면, 근대 이후의 공간은 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며, 비정형적인 열린 구조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공간의 자유도가 큰 - 즉 엔트로피(entropy)가 작은- 복잡계의 혼돈(chaotic) 공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⁵⁴⁾ 상술하자면 질

서 보다 무질서가 지배적인 공간이며, 불확정성, 비결정성, 예측불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간이다. 구체적 현실에서 그것은 쉽게 인지되지 않는 형태와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나타난다. 복잡성의 공간은 인간에게 어지러움의 감각을 제공하는가 하면, 혼돈이 유발하는 흥분과 쾌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6> 공간의 혼란도, 자유도

둘째는 경계면의 한정 불가능성 내지 경계의 해소이다. 안팎을 구획하여 내부를 한정한다는 건축 공간의 오랜 기능은⁵⁵⁾ 근대에 들어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외 공간의 상호관입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경계의 해체 현상은 훨씬 급진적이다. 공간의 분절은 포기되고 그 윤곽과 구획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공간 자체가 다른 것들과 혼재되어 존립하는 경향은 내부와 외부, 공간과 매스, 벽체와 표면의 경계가 흐려짐과 동시적이다.



<그림 7> 빌바오미술관, 프랭크 게리

상하고 있다. 지식 권력이 담론과 매체를 장악하고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과거 오펜지션([opposition])이나 어셈블라주([Assemblage])부터 최근의 존([zone])이나 에니([Any]) 같은 아카데미 내 저널들이 그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53) 소몰은 하이 모더니즘이 늘 자의적인 것, 우연적인 것, 우발적인 것을 억압하고 인과적인 것, 특권적인 것, 의도적인 것을 우대해왔다고 말한다. / R. Somol, "Speciating Sites", [Anywhere], ([공간의 논리], Any 시리즈 4, 현대건축사, 1998), p. 133

54) S. Kwinter, 'Emergence or the Artificial Life of Space', [위의 책, pp. 208~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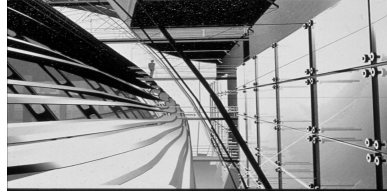
근대주의 공간을 특징짓던 분절적 명료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의하기 어려운 공간 영역이 등장하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바닥, 벽체, 천장이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읽히거나, 혹은 서로 섞이면서 요소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이 좋은 예이다.⁵⁶⁾

셋째로 유연 구조와 유동성의 공간이다. 최근 유체처럼 흐르면서 내부를 곡면으로 감싼 유연한 공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마치 동굴이나 자궁과도 같이, 굴곡지고 휘면서 연속체로 된 내부 공간인데, 일종의 생체 형태론(bio-morphism)적인 공간이거나 리비도적인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들뢰즈의 주름에서 영향을 받기도 한 이 유동성의 공간(liquid space)은 공간 표면을 감싸면서 내적으로는 끝없이 접힘으로써 무한을 수용하려 한다.⁵⁷⁾ 한 마디로 그것은 형상이 없는 공간이며, 지속적인 변형을 내포한 공간이다.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그 공간은 조각으로 다시 수렴하거나, 대지 및 조경과 하나가 되는 양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넷째, 비유클리드적인 공간이나 위상 기하학적(topological) 공간의 건축에의 적용이다. 이는 유클리드적 공리계의 조작에서 도출된 근대의 단조로운 3차원 입체 공간으로부터 탈피 및 새로운 공간 미학의 도입을 뜻한다. 현실 공간에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일은 실상 불가능하지만 사유나 개념화를 통해 ‘다른’ 공간의 가능성을 시도할 수는 있다. 때로는 피비우스적인 공간, 혹은 에셔 회화의 비현실적 공간

을 도입해보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꼬이고 관통하는 공간이나, 공간 안에 공간을 끼워 넣는 방식 등을 통해 단일 체로서의 공간을 넘어서고자 한다.⁵⁸⁾



<그림8> 경계가 모호한 유동공간

다섯째로 공간의 다차원성과 신체성이다. 근대 이후의 공간은 근대성을 지배한 시각(vision) 위주, 객체화된 대상으로서의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의 신체와 오감을 적극 개입시키고자 한다. 르네상스의 투시도법적 공간에서부터 근대의 추상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지각과 인식은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간과 인간 사이의 주객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최근의 건축 공간은 시각을 넘어선 인간 신체의 깊숙한 참여를 요구한다. 공간의 총체적인 체험을 위해 오감을 동원시키고, 매 국면마다 상이한공간 지각을 요청하여 공간 내에 몸을 깊이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의 기울고 경사진 벽과 천장, 바닥은 더욱 예민하게 몸의 균형 감각과 공간 체험을 결부시킨다. 표면의 텍스처는 한층 더 중요해지며 촉지각적인 자극을 유발한다. 몸과 공간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관계로 유도하는 이런 공간에서 인간은 전능한 관찰자이기보다 신체를 매개로 한 참여자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섯번째, 공간의 비물질화, 영상화 경향이다. 건축의 사물성, 물질성이 약화되면서 그에 수반하는 견고함, 영속성, 안정감은 가벼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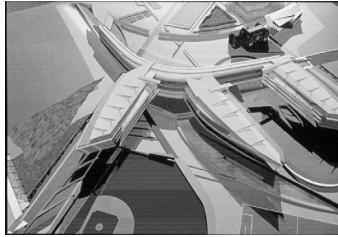
55) Yi-Fu Tuan, [Space and Place], U of Minnesota Press, Mineapolis, 1977, pp. 107-109

56) 서구의 건축사에서 이런 현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크 건축 공간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들뢰즈가 바로크 건축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57) S. Perrella, 'Hypersurface Theory' in [AD 68, Hypersurface Architecture], 1998, pp.7-15

58) 이런 경향은 램 쿨하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건축가들에게서 자주 시도되고 있다.

덧없음, 가변성과 같은 성격으로 대체되고 있다. 건축 존재의 현전(現前:presence)성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에 탈물질적 감각은 강화된다. 이는 최근의 ‘가벼운 건축’(light Architecture)에서 보듯, 물리적 중량감이 희박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림9> 공간재현에서 산출로

오늘날의 건축 공간은 그 형성을 표층과 영상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간의 실제감을 휘발시킨다. 공간의 깊이감은 감소하는 대신 애매하고 불명료한 공간들이 출현하고 있다.

더불어 나타나는 것은 건축 공간의 매체(media)화 경향이다. 이미지가 건축 고유의 물성을 대신하면서 공간의 용기(容器)로서 기능보다 매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동시에 건축 공간은 점점 정보와 사건을 담는 가변적인 장치가 되어간다.⁵⁹⁾ 이는 필연적으로 공간의 가상화를 동반하게 된다.⁶⁰⁾ 공간의 매체화는 실재와 가상이 하나의 장소에 매개되는 사태를 초래하면서, 보들리야르가 말하는 시물라크르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양상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상호 겹치거나 동일한 양상의 서로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동시대의 건축 공간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루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대 건축의 실천에서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공간들에서 이런 성향들이 뚜렷이 발견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체주의 건축에서 최근 활발하게 대두되는 디지털 건축, 유동체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동향을 단순한 스타일이나 유행으로 보기보다 시대의 추세와 감수성을 담으려는 노력으로 볼 때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건축공간의 변모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하고 해석해야 할까?

우선 근대주의적 공간 개념으로 규정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공간들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대 이후의 건축의 존재 양태가 근대 건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공간과의 연속보다 단절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근대적인 시 공간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와는 다른 공간 개념이 등장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 나아가 근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전에 억압되었거나 포착할 수 없었던 이질성/타자성을 흡수하여 건축 공간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기획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동향이 탈근대의 사상과 사회 문화적 변동, 신과학에 젖줄을 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음으로 기술문명의 진화가 추진하는 정보화 시대에 사물이 겪는 존재론적 전환에 건축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것이 건축 공간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벤야민은 근대 기술복제가 초래한 아우라의 상실에 대해 설파한 바가 있다. 보들리야르는 근대 이

59) 'Millenium Part 2. Futures to Come' in [Architectural Record], Dec, 1999, pp.85~87

60) S. Chaplin, Cyberspace ; Lingerig on the Threshold', [AD 65; Architects In Cyberspace]. Academy Edition, London, 1995. pp.32~35

후 사물이 겪고 있는 가상화, 탈물질화에 대해 언급한다. 근대 이후의 건축 공간의 성향이 이에 편승하고 있음은 진지한 성찰을 요한다.

더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으로 대상으로서 공간 자체의 변화에 앞서 인간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근대 이후 인간 삶의 존재 양식이 근본적 변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5. 맺는 말

최근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동시대의 건축 공간이 인간에게 경이로운 공간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축가의 공간적 조작이나 유희를 초월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각 및 인식과 연계된, 삶의 공간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주의 이후의 건축 공간은 인간의 생활 세계를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세워가는 일이며, 동시에 건축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의 건축 공간은 매체의 발달과 장소의 상실로 규정되는 지구촌 시대를 대변함과 동시에 가속화한다. 이른바 유목의 시대에 걸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의 건축 공간은 현대적 삶의 덧없음, 가벼움, 떠다님과 직결되는 것이다.⁶¹⁾ 건축 내적으로 보

자면 그것은 근대 공간과는 다른 차원의 미학적, 표현적 가능성의 탐색이며, 경이로운 지각의 모험의 제공이고, 공간적 환상과 쾌락의 향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3차원성과 신체적 구속성으로 한정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약속하는 듯하다.⁶²⁾ 인간 존재의 질적 변화에 건축공간이 관여하면서, 건축 스스로도 과거와는 상이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⁶³⁾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낯선 공간의 출현이 주로 소비문화, 사이버 문화, 감각 중심의 상업 문화와 결부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목하게 된다. 진지한 전위적 실험들조차도 후기 자본주의의 체제 내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위적 건축 공간의 산출이 한편으론 포스트 포디즘 체제의 욕망과 구속의 공간을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습화된 건축의 문법을 지양하려는 건축가들의 앞선 시도가 건축의 오랜 존재론적 조건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적 사태이다. 오늘의 건축은 일종의 스펙터클이나 이미지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보 매체 사회의 기류에 편승하면서 삶의 가상화로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공간의 구축이 인간에게 거주와 감각과 삶의 정체성 및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근대 이후 공간의 급진적 변화는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⁶⁴⁾

62) 강혁. '거주와 유목 사이'. ([이상건축], NO. 108). 이상건축사. 2001, pp. 127-129

63) 우리는 아직 이 '새로운 초공간'에 대응할만한 인식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적 모더니즘의 공간이라 불리는 구식의 공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건축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이제껏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들을 성장시키려는 명령들과 같은 어떤 것이다. / F. Jameson,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김옥동 편, 문학과 지성사, 1990, P.252

61) 카치아리는 이 시대의 거주 양식은 머뭇거리 아니라 여행, 혹은 방랑(wayfaring)이 된다고 말한다. / M. Cacciari, "To Dwell, to Think", [Casabella, 662/663], Milano, 1999, pp. 6-7

자크 아탈리도 21세기 삶의 유형은 유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J. Attali,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 생크빅, 2005

더불어 동시대의 건축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건립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차이와 이질성, 특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는 그 비싼 공간들이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동참함으로써 또 다른 유형의 동일성, 획일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지독한 역설이다.

또 하나, 현대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공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 공간이 중력에 저항하는 구조체와 외피에 의해 생산된다는 기본 조건을 벗어난 적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과학과 위상기하학, 가상공간 등을 건축 공간에 도입하는 일은⁶⁵⁾ 대부분 유추나 은유에 의한 지각과 감성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에 머물게 마련이라는 엄연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 공간의 체험은 오랜 진화의 산물이자 우리의 의식이 머무는 장소인 신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다. 즉 건축 공간의 지각과 체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 공간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신체와 관계를 맺는 현상적/실존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부인할 순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 이후 건축 공간의 한계는 물론 건축 본래의 한계와 고유 영역을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⁶⁶⁾

<참고문헌>

1. B. Zevi, 「Architecture as Space」, Horizon Press.NY, 1957([공간으로서의 건축]. 강혁 역,1989).
2. B.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U. of Washington. Press. Seattle, 1978.
3. V. de Ven, 「Space in Architecture」. Van Gorcum, 1980([건축공간론]. 정진원 · 고성룡 역, 기문당).
4.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 Press, 1966([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 역. 시공 문화사, 1998).
5. E. S. Casey, [The Fate of Place: A Philosophical History],California, U. of California Press, 1998, p. 192
6. 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MIT Press, Cambridge, 1980(1960).
7. P. Eisenman, 「Re : Working Eisenman」. Academy Editions. London, 1998.
8. J. Kipnis, 「Stages in Architectural Thinking」, CIAU, 1991.
9. M. Wigley, 「The Architecture of Deconstruction」, The MIT Press, 1993.
10. A. Betsky, 「Violated Perfection」, Rizzoli,NY, 1998.
11. C. Jencks, 「Neo-Modern Architecture」, ([네오-모던 건축]. 조희철 역. 공간 예술사, 1992).
12. J.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Rizzoli, NY, 1993.
13. 「New Science+New Architecture. AD 67」, NO.9/10, Academy Edition. London, 1997
14. K. M. Hays. 「Architecture, Theory 건축역사연구 제16권 2호 통권51호 2007년 4월

64) 이런 추세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이론가, 비평가가 케네쓰 프램튼이다. 그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이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다. / K. Frampton, "Toward a Critical Regionalism" in [The Anti-Aesthetic], Ed. by H. Foster, Washinton, Bay Press, 1983

65) 한 예로 유동체는 기체와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에서의 유동적인 공간은 고체 구조의 형태와 표면을 가지고 분위기로서 재현하는 것이지, 실제의 공간이 흐른다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다.

66) 이것을 초월하는 공간이 우리의 거주지 자리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건축이라 불러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40 논문

- 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1998.
15. N. Leach. 「The Anaesthetics of Architecture」, The MIT Press, 1999.
 16. 「Architects in Cyberspace. AD 65」, Academy Edition, London, 1995.
 17. 「Hypersurface Architecture. AD 68」, Academy Edition, London, 1998.
 18. C. Davison, ed., 「Anywhere, 공간의 논리」. 현대건축사
 19.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 by D.Nicholson-Smith, Blackwell, 1991(1974).
 20. H. Foster, ed., 「Anti Aesthetics」, Bay Press. 1983([반미학], 윤호병 역, 현대미학사, 1994).
 21. M. Foucault, 「Surveillance and Punishment」, 1975([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나남출판. 1994).
 22. R. Bogue, 「Deleue and Guattari」, 1989([들뢰즈와 기타리], 이정우 역, 셋길. 1995).
 23. J. Baudrillard, 「Simulacre and Simulation」, 1981((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1992).
 24. G. Deleuze,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지성사, 2004
 25. 김옥동 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0.
 26.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27. D.Harvey,[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역, 한울, 1994)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pace After Modernism

Khang, Hyuk

(Professor,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roperties and specialities of architectural space after Modernism. Space was the main theme of Modernity in architecture and they insist Modern architectural space had its own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he earlier period. With view that another paradigm of space is rising as a criticism of and departure from Modernity, this study try to show what is the contents of difference and how it express in reality.

We can find a new trends in architectural spaces, that are the production of totally different circumstantial background as like information society, digital media environment, post structuralism, new science and heterotopian situation in urbanism. We can call it Post-Modernity in architectural space that would find the 'Otherness' and expand the territory of architecture. It means not only the change of architectural space itself but also different cognition and perception of space is taking place. Contemporaru architectural space has lost its materiality and conventional socio-cultural functions. Dematerialization and media or image -like being is the new characteristics instead. It demands a new way of being in a different life-world as well as the new experience of architecture.

Keywords : architectural space after Modernism, Post-Modernity, difference, otherness
